

벤처빅리그

“으랏차차, 벤처인이 뭉쳤다!”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칠 것을 선사합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천하 여장사를 위해, 힘~



내 불꽃숨을 받아랏!



우승을 축하해요~

가 을별이 유난히 따뜻했던 10월 15일. 때맞춰 불어오는 가을바람보다 더 기분 좋은 벤처인들의 함성소리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중앙교육원을 가득 메웠다.

운동경기를 통해 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구성원의 단결 및 애사심을 고양시키는 벤처빅리그는 건전한 벤처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벤처코리아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5회째를 맞아 다날, 다산네트웍스, 비트컴퓨터, 티켓링크 4개사에서 800여 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기를 펼쳤다.

특히 축구·피구·농구 등의 구기종목과 남녀씨름, 남녀계주, 명랑경기 등의 단체경기는 기업 대항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승리를 위한 혈전 속에 각 기업 구성원들의 단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열기는 줄넘기왕 선발전, 으랏차차 OX 퀴즈 등 개인경기와 응원전, 놀이마당 등 부대 행사까지 이어져 운동회 이상의 종합 체육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 열정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루어진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종합우승을 했던 다산네트웍스가 올해도 축구, 농구, 남자씨름을 우승으로 이끌며 또 한번 종합우승의 기쁨을 토했다. 그리고 준우승은 올해 처녀 출전한 다날에게 돌아갔다. 또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역동적인 응원전을 펼친 비트컴퓨터가 종합 3위, 올해 처녀 출전해 시종일관 일사분란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타사에 깊은 인상을 심어준 티켓링크가 종합 4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4번째 이 행사를 주관한 비트컴퓨터의 송인옥 팀장은 “이번 벤처빅리그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밤낮없이 정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울러 벤처기업 간의 친목을 다지고 운동을 통해 고양되는 선의의 경쟁정신을 건전한 벤처정신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벤처빅리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벤처빅리그를 마치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즐겁게 돌아가는 벤처인들의 뒷모습은 벌써부터 내년을 기대하는 듯 보였다.